

지역 소식 통

부안소방서,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 집중 안내

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에어컨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간 국내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8배 증가했으며, 화재의 79%가 전기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으로, 특히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화재가 집중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은 △전선 상태 점검 · 손상 또는 눌림 여부 확인 △시간 설정 기능 활용 · 과열 방지 △실외기 먼지 청소 · 과열 및 화재 위험 감소 △전용 콘센트 사용 · 멀티탭 과부하 예방 △창문 열고 환기 · 과열 억제 및 안전 확보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정신건강 위한 원예기반 치유농업 운영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며 마음을 돌보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정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5년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위한 원예 기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웅동면 매당 마을에 위치한 치유농장에서 5월 29일 첫 회기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총 10회기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우울 고위험군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씨 뿌리기, 물 주기, 수확 등의 원예활동을 중심으로,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식물의 생장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우울감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인지도 감소와 부정적 사고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서남권 공공의료 강화 '첫발'

정읍시, 소아외래진료센터 · 어린이전용병동 본격 가동... 의료 공백 해소

이제는 아지이나 주말에도 정읍에서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시가 서남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첫발을 내디뎠다.

정읍시는 24일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 어린이전용병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박일시의회 의장 박상훈 정읍경찰서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시설은 정읍아산병원의 협약을 바탕으로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소아청소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아외래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간과 휴일에도 전문의 당직 체계와 응급실 연계를 통해 24시간 진료가 가능해져, 시민들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의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시설 운영을 통해 의료취약 시간에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환자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현했다. 더불어 광주 · 전주 등 타지역 전출을 방지하고 고창 · 부안 등 서남권 진료권의 중심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지역



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전용병동은 단순한 진료시설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의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향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 의료 사각지대 없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관광 · 농업 개선 촉구, 법적 제약 · 정책 실현 가능성 도마에

부안군의회 A의원, 관광 인프라 확충 · 농업 기반시설 개선 등 전방위적 군정 과제 개선 촉구

부안군의회 A 의원이 최근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 농업 기반시설 개선 등 전방위적인 군정 과제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제안은 법적 근거나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A 의원에 따르면 "부안댐 일원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조상 산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순환형 탐방로 조성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의 관광 자원화 필요성을 말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정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 수자원공사 등 다수 기관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다.

A 의원은 계화면의 농로 포장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안군 전체 농지의 20%를 차지하는 계화면이 포장률 30~40%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대와 별도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그러나 농로 포장은 단순한 면적 비

율보다 이용 빈도, 접근성, 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화면의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번 A 의원의 지적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 필요성을 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지역경제 · 지역 특화식품산업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3일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과 지역 특화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특화 식품소재 발굴 연구 및 산업화 관련 기술지원 체계 구축 △지역 특화 식품소재 기반 창업 지원 및 전문가 인력 양성 △지역 농수산물 및

특화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역 특화 소스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시설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유용한 토종미생물의 산업적 적용 범위를 넓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생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을 통해 부안군 특화 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기자

주민 건강 증진 · 여가생활 활성화

고창군, 심덕섭 군수 등 100여명 참석 '성송 파크골프장' 준공

고창군이 지난 23일 오후 성송면 관정리 일원에서 '성송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주혁환 성송면 이장협의회장, 정재형 성송면 주민자치위원장, 김병수 성송면 청년체육회장 등을 비롯한 성송면 기관 · 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성송면 파크골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투입해 기존 성송 체육화관 앞 잔디광장을 활용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에 발맞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성송 파크골프장 준공으로 고창군 파크골프장은 모두 4곳(고창읍스



포츠타운 27홀, 고수 9홀, 상하 9홀, 성송 9홀)으로 늘게됐다.

다음달 공역면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18홀)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월암 저류지 파크골프장(27홀)과 운곡 파크골프장(18홀) 등이 준비중이다. 2027년에는 북부권(흥덕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파크골프는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소통의 스포츠다"며 "고창의 대표 생활체육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후루룩 미식여행 안내서 발간

국수 한 그릇에 정읍의 멋과 맛을 담았다. 정읍시가 관광객을 위한 면요리 테마 미식 안내서 '정읍 후루룩 투어'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읍 후루룩 투어-국수편' (이하 후루룩)은 정읍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지역의 면요리 맛집을 소개하고, 여행 동선을 따라 미식과 감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안내 책자다.

특히 정읍역에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식당들을 중심으로 대표 메뉴와 매장 특징, 방문 팁 등 알찬 정보를 담았다.

국수라는 친숙한 메뉴에 지역의 정취와 이야기를 더해, 소소하지만 특별한

여행을 제안한다.

부록에는 '국수 든든히 먹고 걸어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장산과 주변 관광지 정보를 수록해, 식도락과 산책을 연계한 코스로 구성했다. 내장산 관광특구 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면요리와 함께, 이원일 셰프가 개발한 '버섯돈육칼'도 소개돼 눈길을 끈다.

또한 책자 뒷부분에는 '정읍 디지털 카페 10선'이 부록으로 포함됐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카페부터 문화 감성이 흐르는 공간 개성 넘치는 이색 카페까지 엄선해 여행의 마무리까지 책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폭염 · 집중호우 대비 맞춤형 건강관리 총력

고창군이 지속적인 폭염일수 증가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24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군은 오는 9월까지 독거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집중 관리한다.

고창군보건소,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에 방문보건 전담 요원 42명을 배치해 폭염 고위험군의 건강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혈압, 혈당 등) 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교육 △경로당 및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교육 자료 배부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배부(쿨 토시, 부채 등) 등이 포함된다.

또한 AI기술과 디바이스를 활용해 혈압, 혈당 등 생체 정보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데이터 발견 시 유선 연락 또는 즉시 방문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어르신 맞춤형 폭염대비 건강수칙 자료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촘촘한 건강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